

2014 연대 사회계열 문제

문제1.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제시문의 순서는 가,라,다,나이다. 먼저 나에서는 사회는 개인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각 개인은 이에 맞게 행동해야한다. 이는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나에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없으므로 나가 제시문의 순서에서 마지막이다.

가,다,라는 모두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집단을 이루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라와 달리 가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가에서 개인인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으로 사회 체제의 규칙이 조정되고 욕구체계의 만족이 극대화되고 이를 상상력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이 아닌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시문의 순서에서가가 첫 번째이다.

한편 다와 라는 모두 개인이 집단을 이루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제시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보다 라가 더 크다. 라에서는 개인이 도덕적이어야 집단도 도덕적이라고 본다. 라에서는 정치 공동체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시민적 화합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해야 달성될 수 있고 덕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도덕에 대해 더욱 엄격하다.

한편 다에서는 사회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의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와 라는 모두 집단의 경우이지만 다보다 라가 개인의 도덕성의 작용이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보다 라가 더 크므로 순서는 라,다이다. 이러한 근거들로 최종적으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것으로 제시문의 순서는 가,라,다,나가 된다.

문제2

<문제 2>에서 제시된 갈등 상황에 대해 내포된 해법은 첫 번째로 제시문 [가]에 내포된 해법은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으로 각 개인의 알맞은 욕구 비중을 할당하여 욕구체계의 만족이 극대화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2>의 갈등상황의 해법과 귀결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 간 서로 상충되는 욕구와 주장을 적절히 할당하여 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하여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상력의 작용이 이를 보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에 내포된 해법은 구성원이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시문 [나]에서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은 내가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도 이롭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행동한다면 상충된 요구와 주장이 줄어들 수 있다.

제시문 [다]에 내포된 해법은 개인의 관점으로 <문제 2>의 갈등상황을 보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 집단은 개인보다 집단적 이기심이 있어 비도덕적이다. 그런데 집단이 아닌 개인은 동정심과 배려심이 있고, 사회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충된 요구와 주장들을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문제 2>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제시문 [라]에 내포된 해법은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시민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제시문 [라]에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 <문제 2>의 갈등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제시문 [가]에 내포된 해법은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 내포된 해법은 구성원이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 내포된 해법은 개인의 관점으로 <문제 2>의 갈등상황을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에 내포된 해법은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다.